

고은 불교대하소설



96

대로 오줌을 누다가 바지가랑이로 졸졸 흘러내리게 싸고 있었다.

"아기가 되었는데 그러" 라고 인담이 너그럽게 말하였다.

"그렇잖아... 도인이란 것이 별것이던가. 아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라도 말 부조를 늘어놓아야 대대나 효영과 같은 신함 처사들에게 무욕도의 법력(法力)을 은연중 짐작하게 할 수 있었던가.

비구니 처사의 무너한테는 아직 알리지 않고 수월을 똑똑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혔다. 인담이 손수 옛 도반인 수월을 그토록 자상하게 돌보았다.

그가 수월을 이빨을 덮어주면서 "꼭 쉬게...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라고 위로하였다.

인담이 그의 거처에 수월을 두고 나와서야 우녀에게 알렸다.

"수월이 돌아왔소."

"올 때가 되어 왔겠지요."

"고생을 많이한 모양이요."

"아무래도 수월수좌께서 이곳에 오래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냥...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없겠지요?"

"병든 몸인 것 같습니다."

"나무관세음" 이라고 우녀가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이놈의 파도소리! 저놈의 파도소리! 이 소리와 함께 지고 저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세월이 무욕도의 하루하루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녀의 눈은 마치 굶주린 독수리의 눈처럼 밝아 그런 세월의 어느 끝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울고난 뒤와 같은 젖은 눈이 아니라 그녀의 놀라운 기억 속의 눈이었다.

"올해 수월수좌의 나이가 꼭 서른살입니다."

"그런가."

"그동안 그 스님은 아무런 스승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부처님도... 달마조사도... 다 길가의 말뚝구리라고 여겼습니까. 조사나 말뚝다 조사와 방귀소리나 듣고 그만이었다는 것일까."

어느덧 대화가 그런 수월을 부축해서 때때로 태웠다. 비록 해골

형상의 수월이지만 그가 더해지자 때가 그만된 듯이 무척 때때로 돌이 뿔뿔 사이에서 더 걸쭉해지는 것이었다.

대화가 쇠대를 돌 길이 막아 때때로 밀어내면서 물 위에 뒀다. 그러자 효영도 막대를 열심히 저었다.

그들이 무욕도에 달기까지 인담이나 누구나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수월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사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큰 공부를 위해서 8도강산을 돌 하나로 떠올라... 그가 공부하는 길을 걸어 가노라면 그가 가는 곳마다 복된 땅이 되리라는 열원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그런 상거지골로 병들어 돌아오는 것이었다. 인담이 선착장에 닿자마자 수월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와도 같은 정다운이었다.

"수월수좌가 아는 이는 우녀보살이 계시지... 그밖에는 다 다른 세상에서 보살의 길을 걸고 있다네."

"....."

수월은 걸음을 멈추는 듯 허더니 멈춰선채 그

"꿈과 集의 세상 아수라 조선을 이제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월은 무욕도에 건너온 7일뒤 눈을 감았다

것을 짐작하였다.

"건너오는 길에... 아주 약이라도 자여올 걸 그랬어... 맥도 잘 짚어서..." 라고 인담이 말하며 수월의 손목 뒀고 그의 엄지손가락 머리를 댔다. 진맥이었다.

맥

을 보는 일이라면 인담도 어느만큼 익숙한 처지인데 그런 일을 숨기고 있었다. 수월의 맥락으로 보아 간장 비장 취창들이 꼭 허약해져 있었다. 허약해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수체 그쪽 부위와 이어진 맥은 놀기를 그만 두고 있었다. 문득 수월에 대한 불결한 생각이 일어났으나 곧은 수월이었다.

"머릿 꼭 쉬고 나면 괜찮겠지... 어떻게? 족제비라도 한 마리 잡아다가 고아줄까" 하고 농담까지 던졌다.

그러나 수월은 그런 농담 따위에는 아무런 대꾸도 없

었다. 그가 좀 물어 회복되자, 이 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겨우 그런 정도의 농담이나 주고 받는 것에 대한 환멸까지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수월이 바짝 마른 입술을 떠다 놓은 물로 적신 뒤 한두마디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다. 얼굴에는 일체의 웃음이나 밝은 표정 따위가 있어본 지 오래인 것 같았다.

하지만 남마를 걸친 상거지골과는 달리 지난 날의 무욕도 수좌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고(苦)이 고(苦)라든 것, 괴로움 아픔이라는 것도 여기서 맨입으로 말하는 것은 한번도 얼음이나 눈을 본 적이 없는 남방인이 얼음이나 눈을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 한 세계를 수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풍문(風輪)에서 위는 세계(世界)의 초선(初線)까지이다. 초선이라면 법천(梵天)의 세계이며 최고의 신인 법천의 세계가 한 세계의 맨 위인 것이다.

그런 면 위를 벗어나는 세계 밖의 존재가 곧 불보살인데 그 불보살은 거기에 있되 항상 세계 안의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 세계 안에는 축생이나 아귀로서의 귀신도 아무 없다.

(구사론)은 축생이 사는 곳은 물과 돌 그리고 공중이지만 그 근본은 저 대양이었다가 뒤에 거기서 물과 공중에 옮겨왔다고 말한다.

이런 진술은 2천년 뒤의 주장과 하나도 모순되지 않고 들어맞는다.

귀신은 죽은 뒤의 망자(亡者)를 말한다. 그것은 '가버린 사람'이란 뜻인데 그 귀신은 죽은 지일뿐 굶주림에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죽은 자는 처참한 곳에 있으므로 그 귀를 아귀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이 아귀는 한 세계의 지역 삼부주 아래 5백수인이 지난 곳에 있다. 망자로서의 그 귀는 먹이 있는 것과 먹이 없는 것으로 나뉘어져 덕 적은 숲이나 나무 위에서 지내는 생활을 하고 때때로 지하의 세계를 뛰쳐나와 하늘 속의 공중에서 노닐 수도 있다.

그런데 먹이 없는 죽은 동물이 구덩이에서 살거나 굶주리거나 하는데 그런 아귀는 배는 신덩어리만큼 불타고 죽은 바늘처럼 가늘어져 있다.

그러하니 그 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큰 아귀라기라도 모자라는데 배를 하나의 욕구멍으로 도저히 배를 채울 수 없으므로 그야말로 아귀인 것이다.

입에서 고통이 나와 개미가 그 고통에 모여들게 된다. 그 뿐이 아니다. 그런 아귀와 함께 몸이나 더러운 흙탕물을 끊임없이 먹기도 한다.

수월의 세월

"호랑이를 만나 기절한 후 새가 되어 삼천대천세계 날아다녔습니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 저 고장의 떠돌이 거지나 놀이패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것도 싫어하면 혼자되기도 하다가..."

"우녀보살은 그걸 어찌 다 알고 있으?"

"안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담은 우녀의 생각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몰랐다고 있었다. 그는 수월이 궁극하였다.

"함께 가봅시다."

두 사람은 수월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누워있는 사람답게 눈을 감고 있었던 수월이 한참 뒤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떴다.

"수월스님!"

우녀가 함께 산 동료답게 아랑곳하였다.

"우녀스님이 아니요?"

"여기에 우녀밖에 누가 있어요? 수월스님 친구인 우녀 말이오" 라고 반가워하였다.

수월이 슬슬 허리를 일으켜 앉았다. 얼굴은 햇빛과 바람으로 거칠어진 그대로였는데 입술의 아래쪽은 깨무켜무켜게 말라있었다.

두 사람은 그런 수월이 짙은 병에 걸려있는

"집(集)은 또 무슨 개똥더귀란 말이겠습니까... 말(誠)은 그름달대러 보름달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道)란 캄캄한 오밤중의 도둑놈일 따름입니다."

인담과 우녀가 이런 뜻밖의 말에 머쓱하였다. 그들은 귀를 가다듬었다.

"나는 내가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함경도에서 평안도로 넘어가는 산길에서 두 사람의 떠돌이 가객(歌客)과 함께 가다가 높은 가객이 그만 호랑이한테 물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나와 풀은 가객은 호랑이의 기운에 떨어 넘어진채 기절하였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 놀랐군" 이라고 인담이 토를 달았다.

"그 기절이 깨기까지... 나는 삼천대천세계의 여러 곳을 새가 되어 날아다녔습니다."

"....."

이틀이면 그런 세계관 (구사론(俱舍論))에서 말하는 바 '월위산(巖洞山)'이 하나의 세계를 에워싸고 있다"라 하거나 그것은 한 세계를 평

이런 얘기를 수월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늘어놓은 나머지 조선 8도강산은 결코 유람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축생 아귀 등의 중생이 감당하는 고(苦)와 집(集)의 세상임을 그의 병든 몸속에 감추어온 큰 목소리를 꺼내 노여운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구사론)에는 없는 아수라세계까지도 수월은 말하면서 지금 조선은 위와 아래 그리고 앞과 뒤가 다 아수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런 곳을 이제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바로 수미산 밑에서부터 저 높은 세계로 이어져 있는 법천의 세계인지 어찌하는 가보아야 하겠으나..."

"먼저 가고 뒤에 가는 차이라는 것도 타일이 지" 라고 우녀가 혼잣말을 남겼다.

그렇게 누워있던 수월이 눈을 감은 것은 그가 무욕도에 건너온 7일 뒤의 일이었다. 화장(火葬)이 아니라 수장이었다.

그림·조항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문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찾으십시오.

문의 (02)737-8881 (금곡) 팩스 (02)737-0697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품목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사찰, 포교원 안내

- 주체가 이면서도 주변복지 수리한 전천주대
- 대지 38평 (재건축시 80여평으로 환용가능)
- 수탁산, 불향산, 포교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전망
- 전철역에서 10분,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70-80평 범위 가능

성담명령 전화 937-6909

이연공고

하기자는 본인과 사제의 연이 다하여 부득이 이연을 공고함.

승속 백산 목화 남일

불기 2540년 9월 10일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야리

도현장사 한용, 도현

동불·탱화 순금불사·불상제작

탱화사

주소: 성북구 정릉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탈종공고

한국불교대학교종

사찰명: 대승사 소재지: 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66-2

창건주: 최경희 후원회: 082024-2451213 전화 0417-566-6259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현 중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6년 10월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 2046 현대불교신문사

韓國民俗哲學研究所

구 직

50대 중반의 특선 남직원입니다. 사찰에서 운전기사로서 저사 겸 일할 곳을 찾습니다. 운전자적은 1종 대형 면허이며 저정도 중습니다. 연락처 (0351)41-1152

※주변에 전화 안하면 여관에 전화 주십시오 박성훈 합장

벽지 공장 직영

벽지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사찰벽지 전문
- 일반벽지
- 방문작업

문의·주문: (0351)-878-2889

가사일 도와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내집처럼 가족같이 지내며 불경을 공부하고 가사일을 돌보실 선심깊은 보살님을 모십니다. (30-40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연락처 (02)915-5844

기도·공부·휴양할 곳

산세수려한 정원과 같은 곳에서 기도, 공부, 휴양할 분을 모십니다.

■ 현대식 건물로 20여개의 방을 완비하고 식사 제공합니다.

- 세탁 및 목욕시설 완비
- 차량 24시간 대기
- 산책로 보유

연락처: (0595) 83-2933

※ 문의상담후 가격결정

寺刹 및 古殿 建築木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래짐 방지)
- 木材방충, 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소재(원목) 수입판매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삼천리(우측로 27) 문의: (02)266-2629, 팩스: (02)266-2679

韓國木材防害工業株式會社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전통공예 기술로써 각 사찰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 년을 기리 남을 정성으로 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친도 방제사: 서향전, 불단 속초 구복암: 천불전, 단경, 산신각, 문파 제주도 현각사: 불단, 단경, 방상동리 설악산 오세암: 천불전 상각산 연화정사: 천불전, 단경, 문파 구로동 원흥사: 불단, 문파 불교예매관: 불단, 문파, 경각회 영유리 보문정사: 불단 안양 약수암: 불단, 단경, 천불전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0346)553-648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가족과 함께하시든 무방하고 가족중에 몸이 아프신 분은 스님께서 약초로 보살펴 드립니다.

정명사 연락처: 0463-32-2805

사찰 운영할 분

- 위치: 경남 함안군 용곡면(대구에서 1시간거리)
- 부지: 1800평 (가치 1억5천)
- 월당: 12명, 오사채: 20명(명3개)
- 사무실: 12명(명2개), 주무실: 20명
- 가격: 1억5천

※ 교부처의 선제적 보양에 따른 고령화, 지방교정기도당 가격은 불허 후 별도 협의 연락처 (0599)33-4802